

민물낚시



기본도구

낚시대

낚시인의 취향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낚시대는, 일반적으로 릴의 부착 여부에 따라서 릴낚시대와 민낚시대로 구분하고, 이음새의 형식에 따라 한마디형·꽃기식·빠내기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용도별로는 플라이 낚시대·캐스팅 낚시대·배 낚시대·트클링 낚시대·갯바위 낚시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밖에 대나무·나일론·글래스 화이버·카본 화이버·보론·위스커·케블러·페놀·에폭시 수지 등, 낚시대에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낚시대의 소재는, 유리섬유(글래스 화이버)와 카본이다.

(낚시대의 명칭) 이음없이 한 토막으로 된 낚시대를 한마디형 낚시대, 하나 하나 끼워 넣는 형식의 낚시대를 꽃기식 낚시대, 굵은 토막속에 가는 토막을 차례로 넣어 빠내는 형식의 낚시대를 빠내기식 낚시대라고 한다.

또 릴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낚시대를 릴낚시대라 하고, 릴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낚시대를 민낚시대라고 한다.

스피닝릴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된 낚시대를 특별히 스피닝릴 낚시대라 한다.

(낚시대의 좋고 나쁨) 낚시대는 낚을 물고기의 종류와 낚는 방법에 따라 알맞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나무 낚시대이든 카본 낚시대이든, 물고기와 같은 정도의 무게를 지닌 물체를 낚시대 끝에 늘어뜨려 보아 각 낚시대의 휨새대로 평균적으로 휘어지는 것이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보자에게는 우선, 자신의 몸에 맞는 낚시대로서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약간 견고한 낚시대가 휘두르기 쉽다.

찌

찌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의 움직임 보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아무리 물고기가 많은 좋은 포인트라도, 찌가 어신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포인트는 좋은 포인트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찌는, 어신을 전달해 주는 역할 외에도 수심을 재는 척도 구실을 하며 봉돌이 바닥에 닿았는지, 수초 등의 장애물에 걸렸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바닥이 편편한지,

경사진 곳인지, 빨인지, 자갈밭인지를 알게 해주며, 물흐름의 여부도 알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찌는 수심을 잴 때는 자(尺)의 구실을 하고, 낚시할 때에는 물고기의 입질 여부를 알게 해 주고 입질이 있을 때는 챔질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낚시인들은 '낚시는 찌가 하고, 사람은 찌를 조종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찌의 종류) 찌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대개 형태별로 고추형·오뚜기형·구슬형·유선형·막대형·수중찌 등으로 구분된다. 재료에 따라서는 오동나무찌·발사찌 등이 있다.

좀 색다른 것으로는 수면에 물결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털바늘용 찌가 있다. 청류에서 사는 피라미나 은어·산천어는 수면에 물결이 일면 가까이 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찌를 사용하면 좋다.

(찌의 도료와 색) 몸체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옷칠을 하거나 비닐 등을 씌우고, 보이는 부분에는 빛이 나는 형광도료를 칠하는데, 대부분 빨강·노랑·녹색 등을 칠한다. 찌의 색은 수면에 비치는 배경이나 광선을 생각하여 반대색을 선택한다.

봉돌 봉돌은 낚시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먼거리에 던질 낚시에는 1~10호 무게의 구멍봉돌, 근거리에 던질 낚시에는 도래봉돌이나 소형 구멍봉돌이 적당하다. 찌낚시·맥낚시에는, 도래봉돌을 비롯하여 소형 구멍봉돌·조개봉돌·녹두봉돌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낚시바늘 (바늘의 기본형) 긴턱바늘·등근형·모난형의 바늘이 기본형이며 미끼나 물고기의 입에 맞추어 여러가지 모양의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좋은 바늘 나쁜 바늘) 바늘의 소재가 늘어나거나 부러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바늘을 꿰다가 놓았을 때 본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면 된다.

바늘 끝을 엄지손가락의 손톱에 세워그어 보았을 때 미끄러질 정도면 안된다. 그럴 경우엔, 손톱에 박히는 느낌이 들면서 멈출 때까지 더 갈도록 한다.

그리고 바늘은 물고기와 미끼의 크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큰 물고기를 낚는데에 작은 바늘을 사용한다면 퍼져 버리거나 부러져 버린다.